

인천광역시 도시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변화 특성 연구

곽남현* · 한봉호**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인천광역시는 제물포 개항과 함께 서구식 문물이 유입되었고, 일본 강점기 병참기지화에 따라 도시 및 공업 용지 확보를 위한 연안 매립으로 고유의 해안경관이 파괴되었으며,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급격한 도시화로 녹지축을 훼손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연안도시이면서도 연안경관 특성을 상실하였고, 생태적 근간인 한남정맥 산림축은 단절되고 훼손되었다.

1883년 제물포 개항으로 인천에 각국 조계지가 조성된지 132년이 지났고, 각국공원이 조성(1888년)된지는 127년이 지났다. 인천시가가지계획령에 따라 인천부의 최초 도시계획이 고시된 1937년 이후 7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도시계획과 도시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변화가 어떤 관계와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는지, 그동안 도시화 과정에서 인천 고유의 자연환경인 한남정맥 녹지축 산림생태계와 연안 생태계, 논 경작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안에 입지하여 개항으로 인한 근대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 공원녹지의 시기 변화 특성 등을 고찰함으로써 공원녹지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개황

연구대상지인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의 한남정맥이 관통하는 개항도시로서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어왔다. 따라서 도시개발 과정에 따른 시기별 분석이 가능하였고, 빠른 도시 팽창으로 인한 한남정맥 녹지축의 훼손 정도, 남아 있는 논경작지, 매립 및 항만개발에 의한 연안 경관 변화 등, 도시 형성 과정 및 특성이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였다.

2. 조사 분석 방법

인천광역시 도시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관련 문헌 및 인천광역시 내 도시계획 및 녹지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변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에 의한 자연환경 변화 및 공원녹지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단계는 공원녹지 특성을 파악하고자 공원녹지 제도 변화, 공원녹지 시기별 특성, 공원녹지대장, 공원녹지기본계획, 녹화추진계획, 녹지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공원녹지 변화 특성 및 정책 방향으로 인천광역시의 도시 변화와 공원녹지 특성, 도시 특성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원녹지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및 정책, 도시변화 등을 종합한 결과, 시기별 특성에 따라 제물포가 개항되기 이전인 조선시대 말기 이전까지를 '개항 이전기(1883년 이전)', 제물포항이 개항되고 각각 조계지가 설치되어 서구문물이 유입된 시기를 '도시발생기(1883~1914년)', 일본의 조선 병참기지화에 따라 산업화가 진행된 시기를 '도시성장기(1915~1944년)', 해방과 6.25 한국전쟁을 겪은 사회적 혼란기를 '과도기(1945~1959년)',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임해공업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를 '도시팽창기(1960~1994년)', 민선자치제가 시작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개발된 시기를 '도시부흥기(1995~2009년)',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고 국제도시로 발전한 시기를 '도시확장기(2010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도시구조 및 계획적 변화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변화 특성은 자연 의존기(1883년 이전), 서구식공원 탄생기(1883~1914년), 도시공원 지정기(1915~1970년), 도시공원녹지 조성기(1971~1994년), 공원녹지계획 확립기(1995~2009년), 법정공원녹지계획 수립기(2010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의존기는 자연에 의존하며 수렵과 채집, 농경 정착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서구식 공원 탄생기는 1883년 제물포 개항과 함께 서구식 근대도시 문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각국공원(자유공원)이 조성된 시기였다.

도시공원 지정기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이 결정 고시된 시

기로, 도시계획 결정공원 태동기(1915~1944년), 과도기(1945~1959년), 도시공원 지정기(1960~1970년)로 세분하였다. 도시계획 결정공원 태동기에는 인천지구 27개소(2,832천m²)와 부평지구 23개소(1,857천m²)의 공원이 총독부 제13호(1944) 고시로 최초 결정되었다. 과도기는 해방과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유입으로 공원이 무단 점유 잠식된 시기였다. 도시공원 지정기에는 최초의 도시계획 결정공원이 탄생하였고, 대형 공원의 조성이 시작되었다.

도시공원녹지 조성기는 현대적 개념의 공원이 결정·조성된 시기로서, 법정공원 조성기(1971~1981년)와 도시녹화추진기(1982~1994년)로 세분하였다. 공원녹지계획 확립기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인천광역시 녹지공원정책방향이 설정된 시기로서, 시민 1인당 나무심기기(1995~2002년)와 생명의 숲 조성기(2002~2009년)로 세분하였다. 이 시기를 인천광역시 공원녹지의 르네상스기라고 할 수 있다.

법정 공원녹지계획 수립기에는 2010년 법정 계획인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시민 참여로 인천 녹지축을 보존하면서 이용하는 인천 둘레길(140km)을 연결 운영하였다. 한남정맥과 연계하여 S자 녹지축을 연결하는 Eco-bridge 조성을 시작한 시기이었다.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변화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경관적 Green infrastructure에 기반한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 방향은 녹지축 회복, 연안경관 회복·생태계 복원, 논 경작지 보존 및 관리, 강화군 생태계 보호 및 관리 등이 필요하였다.

IV. 결론

인천광역시는 개항 이후 급격한 도시확장과 구조적 변화와 함께 연안경관과 한남정맥축이 훼손된 반면, 다양한 도시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어 왔다. 현재 상황에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인천광역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연환경은 보존하고, 훼손된 한남정맥과 S자 녹지축, 연안 경관 생태계, 논 경작지 등의 자연환경 회복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관리 및 조성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공원녹지가 복지공간으로서 각광 받을 것이며, 도시가 다양하고 광역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녹지가 시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생태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녹색 복지 인프라로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신용(1995)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도서출판 조경. p.152.
2. 강화군(2008) 강화 옛 지도. 두립인쇄. p.213.
3. 박인제(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3.
4. 손정목(1994)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 일지사. p.479.
5. 인천광역시(2003) 인천시사. 인천광역시. p.1033.
6. 인천광역시(2004) 지도로 보는 인천 120년. 인천광역시. p.136.
7. 장성규(2008) 백두대간의 역사. 한국학술정보(주). p.197.
8. 한봉호(2000)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녹지축의 생태적 특성 평가 및 식재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1.